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8월 20일 오전 7:34 263 읽음

<단상>

슬슬 정리를....(1)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불려 나와
인생에 종사한 지 70 여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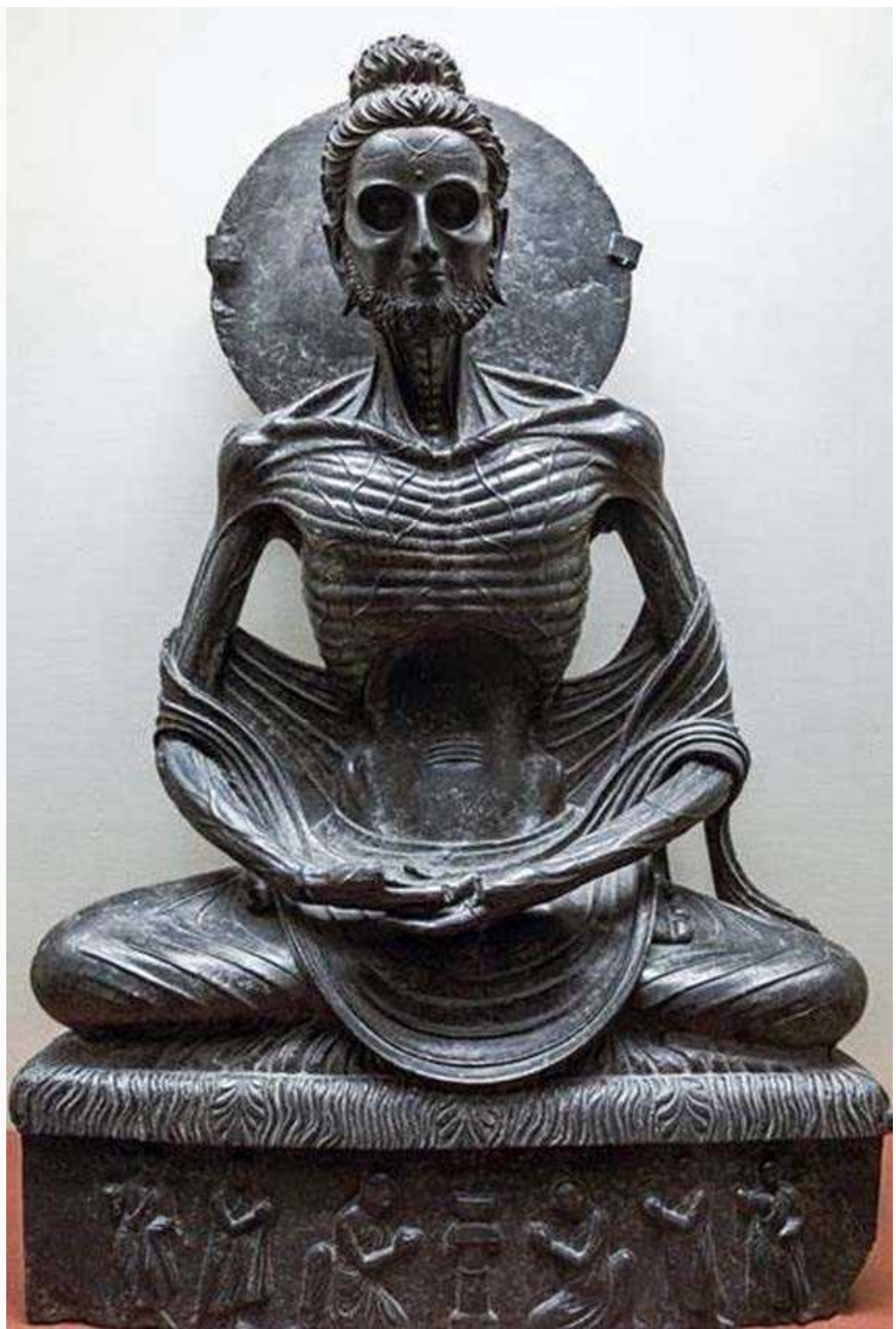
요즘은 자꾸만
푸른 하늘이 쳐다 보인다.
흰 구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



잔인하고도 지독한 수수께끼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고통스런 잉태는 또 무슨 짓이었던가.....



살아 숨 쉬는 것들의 덧없음,
죽음을 앞둔 것들의 허망함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것들의 외로움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치열한 득도는 싫고 또한 자신도 없다.
우주를 관통하는 지혜는 물론 나에겐 버겁다.
그러나 지난 70 년,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함은 너무 슬프다.
하여 슬슬 정리를 하고 싶다.
나름대로 의미 규정을 하고 싶다.
순전히 나를 위해서....



수많은 꽃들의 순교를 보았다.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일말의 주저도 없이 버리는 용기를 보았다.
잉태를 위한 희생 앞에 내가 깨달을 뿜은 무엇이었던가....



살아 숨 쉬는 꽃도 보았다.
세월을 아름답게 소비하는 보기 드문 꽃이었다.
인생의 포커스를 어둡고 칙칙하게 맞추려던 나의 조리개는
덕분에 한순간이나마 밝고 명랑하게 활짝 열렸었다.



그러나 나에게도 수컷의 멍에는 씌워져 있었다.
젊은 날의 고통은 순전히 수컷이 안고 가야 할 시한폭탄이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황홀한 암컷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지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은 너무 멀리 있었다.



나는 바짝 마른 쉼나무였고 그녀들은 불길이었다.
눈길만 마주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뛰어들어
활활 타오를 각오는 충만하였다.
독초라도 상관없었다.
악마라도 교화시킬 자신이 있었다.



내 뿜는 산소에 기꺼이 중독될 자신이 있었다.
죽음이 가치를 지니자면
이런 여인이 개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더 알미운 수컷들이 암컷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가로막았다.



온몸에 수컷 내 진동하는 페르몬을 쳐바르고
뚜껑 열린 탈 것에 재화를 가득 태우고 나타나더니
여분 하나 남기지 않고 암컷들을 독점하였다.



나는 황량한 폐허에 내팽개쳐졌지만
나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살아오면서 득도의 경지는 아니더라도
지혜와 슬기가 반죽된 깨달음 하나는 얻었노라고.....
체념!
체념은 따지고 보면 참으로 용감한 결단이었다.
미련을 남기지 않는 체념은 무공해이자 친환경....아니
친 인생적인 깨달음이었다.
체념할 줄 몰랐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70 여 년을 살아오면서 체념을 능가하는 시련을 겪고 있다.



참으로 끈질긴 프로포즈였다.
내 평생은 거절하는데 지쳐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인맥을 동원한,
간단없는 '대시'에 시달린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내 '아버지'는 엄연히 선산에 누워계시고
원죄는 나의 동의나 묵인 방조 없이 저질러진 것이므로
'구원을 당한' 그대들의 열락을 제발 나에게 나누지 말지어다. ▣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구독하기
글 옵션

최고예요 좋아요 18

댓글 13 공유 1

표정짓기

공유하기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좋아요



• 최고예요



- 좋아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좋아요

표정짓기



신명옥

불꽃이 사그라지기 전에
한번 더 반짝 빛을 발한다지요.
~ 좋은날이 기다릴지도
모르지요. ㅎㅎ

저는 좀 색다른
불꽃 한번 피워볼까 하고 시간과 찌를 들여서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수술준비중이거든요
수십가지 검사 무난 통과에
난데없이 당 수ちに 딱—
걸려서 당과의 싸움에 분투
중입니다.
달달한거 입에 달고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간만에 안부놀이 갑니다. ^^)
8 월 20 일 오전 7:51
최고예요 2

표정짓기
댓글 수정



흐르는 강물처럼
@신명옥

반가운 소식입니다. ^^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8월 20일 오전 7:58
좋아요 1

표정짓기



김자운

인생의 찐 깨달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듯 70에 이르러서도
님..처럼 어느지점의 경지에 이르신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기에요 ^^

70까지는 몇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정리라는 단어에
폭풍공감과 암컷 수컷의 관련된 것 빼고는.. ^^
나머지 함축된 의미들을 알 듯도 하여... ㅎㅎ

잘 사신 겁니다.

어제 가까운이의 부고를 접하고 인생이라는 삶의 덧없음을..
그리고 허망함과 황망함으로 님의 글이 예사로히 읽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어제와 별반 다름은 없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루다가 지내보려 합니다.

여기계신 댜님 모두 오늘 하루도 소소하게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요. ~^
감사합니다.

8월 20일 오전 8:32
최고예요 4

표정짓기
댓글 수정



꼬꼬리꼬

詩와 물리학의 접목을

시인이 하심은 신선? 경이롭기도 생각되나 물리는 넘 어려워
글쎄요 입니다.

이 글 해기시인 댓인데
~죄송합니다.
8 월 20 일 오전 9:30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옥지니



8 월 20 일 오전 10:05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희망 그대로
워린버핏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오늘 하루도
잘버틴 사람이
바로 '성공한사람'이라는!

포기할줄 알아서
오늘도 잘버텼고

내려놓을줄 알아서
오늘도 잘버텼고

소소함에 즐거워해서
오늘도 잘버틴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사람!!~^^~
8월 20일 오전 10:09
최고예요 좋아요 2

표정짓기
댓글 수정
사월

평생 끈질긴 프로포즈와 대시를 받고 계시다니 그 또한
축복입니다.

최근에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었는데
오늘 선생님 글을 읽으니 왠지 소개해 드리고 싶어집니다.
기존의 이분법적인 인식을 깨뜨리고 물과 기름의 유화제 같은
사고로 세상을 사랑으로 아우르는 작가의 카운터 내러티브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들더군요.

선생님의 글에 매료되어 눈팅만 하다가 처음 댓글 남깁니다~^^
8월 20일 오전 10:20
좋아요 2

표정짓기
댓글 수정



박영순

세상은 강한 놈이 살아 남는 게 아니라 잘 적응한 자가 살아
남는 것이지요?
저도 안 죽고 한갑자를 넘겼으니 어지간히 독한 놈인 가 봅니다.
ㅎ

8월 20일 오전 11:24
최고예요 좋아요 2

표정짓기
댓글 수정



윤순열

영문도 모르고 불려나왔으니
말이지
영문을 알고
본인의 미래를
볼수있다면
인생에 종사할 사람은
팔자 좋은사람만

나오겠지요 ㅎㅎ
누구나 이세상에 나올때는 자기만의
소중한 사명이 있다고 하지요
8월 20일 오후 5:31
최고예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고도를 기다리며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인 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생각나는 글귀입니다.
그어디에도 속함없이
남은 인생 살고픈 1인 입니다.ㅎ
8월 20일 오후 6:10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윤순열
동네한바퀴라는 TV 프로에 3대가 장 담그신다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가네요
된장보다 더 짭게
인생인거여
8월 20일 오후 7:57
최고예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남옥희
시인의적은 무식이라든가~
무식없이 살아온것만해도
태어나 아주 잘살아온나날들
자신을 돌아볼줄
아는이 이기에
아름답게 나머지를

거스름하고 계시는건가 봅니다

8 월 20 일 오후 9:58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아리

하늘을 깨물었더니 비가 내리네

비를 깨물었더니 내가젖네...

선생님 말씀에 귀기울여지네요
삶이란?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8월 22일 오전 4:55 291 읽음

<단상>

정리를 해보니.....(2)



(첫 휴가 때 환대를 해 준 이웃 교대 학보사 기자였던 홍양)

나는 첫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고
그녀는 동석한 친구의 귀뜸으로 잠깐 얼굴을 내밀었지만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취재 건이 있다며 발길을 돌렸다.

내일 만날까?
죄송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다음날 나는
배신의 현장을 답사하였다.
신부 들러리였던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
기지에 넘치는 위선을 발휘하였다.

언제 휴가 나오셨어요?
방금.....

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럼 오랜만에 만났으니 너는.....



신혼부부의 가방을 들고 해운대까지 동행할 그녀의 계획이 함께 가려던 친구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아뇨.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도 급히 가 볼 데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배신을 향해 안심하고 행진하도록 돌려세웠다.
뒤돌아선 그녀의 등짝 위로 실패의 얼룩이 남자하였다.
이로써 지난 3년간의 치열한 쟁탈전은 종결되었다.

배신자의 불안과 배신 당한 자의 평화.
결국 문제의 평화는 내가 거머쥐었다.

유명인사 동정 난을 통해 알게 된 그녀 아들의 결혼 소식은
또 하나의 위선이 안겨 준 보너스였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진단했는지는 모르나 그녀는 불임을 핑계로 울고 불고,
3년 동안 얼마나 사람의 진을 뺐던가.....
그녀와 아이를 한 데 묶은 패키지 이미지로 사랑을 확인하려던
저의.
지금도 불가사의한 그녀의 사랑법이였다.

그녀로 인해 박인 실패와 좌절, 배신과 불신의 굳은살은
역설적이거나 내 일생을 통해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겨우 하나 건진 상패. 그나마 입선이다.)

나는 번번이 최종심에서 탈락하였다.
희한하게도 당선작은 언제나 그녀를 닮아 있었다.
고로 나의 탈락은 배신이나 진배없었고
때문에 배신 당한 자의 평화는 항상 내 곁에 머물렀다.



돌이켜보니 제대로 축배를 든 날이 없었다.
아무래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나 홀로 장엄한 축배를 들어야겠다.☘

(일부를 제외한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구독하기
글 옵션

최고예요 슬퍼요 13

댓글 4
표정짓기
공유하기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최고예요

•
표정짓기



강미애 나무소리

와우. 저리 젊으신 때가 ^^ 그 실패가 선생님의 삶의 도전의
원동력이니 그분은 은인이신듯 합니다. ^^

8 월 22 일 오전 7:58

최고예요 좋아요 2

표정짓기
댓글 수정



지선



8 월 22 일 오후 5:11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고도를 기다리며

인생의 한페이지를 아름다운 색상으로 칠했던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면 좋을듯해요. 한토막의

애증의

추억거리도 없는 삭막한 인생이 아니었으니~~

8 월 22 일 오후 7:09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박영순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나는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마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 지 몰라도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나는 돌아설 수 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8월 23일 오전 1:01
재밌어요 1

표정짓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8월 25일 오전 3:16 170 읽음

<단상>

정리를 하자면.....(3)



어른들은 나만 보면 자리를 피했다.
어려서부터 질문동으로 알려진 나는
아무나 붙들고 궁금증을 풀어야만 하였다.
성익껏 대답을 해 주다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왜?' 때문에
결국 나는 기피 어린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끊이지 않는 궁금증은 혼자서 해결해야만 하였다.
그 중에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의 하나는 물질이었다.



물질의 본질은 무엇일까?
무엇이 부피를 이루고 무게를 감당하는가?

의문을 풀기 위해선 당연히 물리와 화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물리화학은커녕 기초 학문인 수학을 단념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궁금증은 줄지 않고 나날이 부풀어만 가던 중 생경한 화두(話頭) 하나가 내 귀에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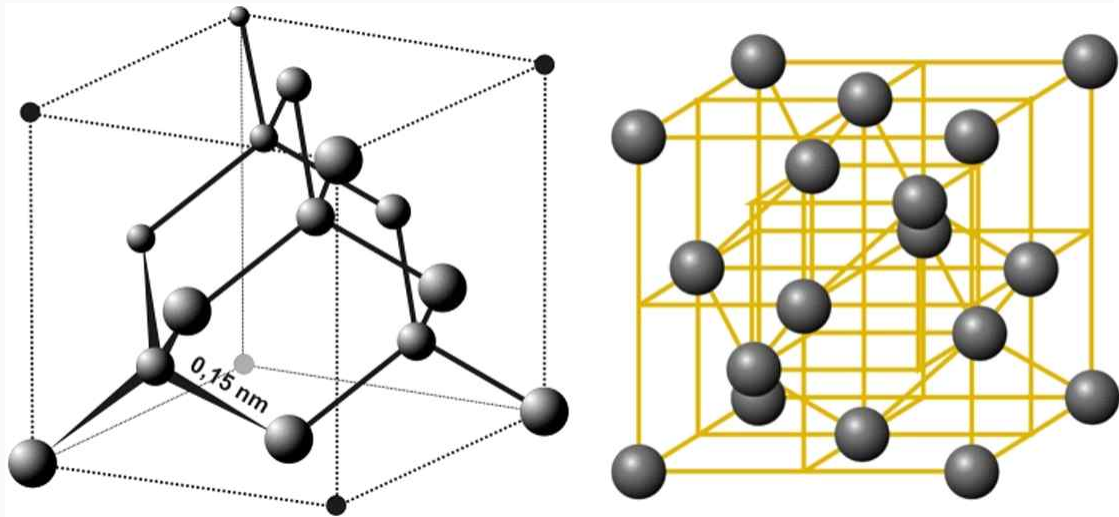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원지 모르지만 눈으로 확인해야만 될 종류의 화두였다.
엄청난 물리 화학적 지식을 갖춘 분석안이라야 하였다.
심오한 철학적 소양을 겸비한 심미안이라야 하였다.
무엇보다도 종교적 수련을 거친 혜안이라야 하였다.
그러나
내 까막눈의 깜냥으론 난공불락의 화두였다.

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타고난 기질이 궁금증의 노예라
물질의 본질이 보관된 풍차를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는
돈키호테였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구?

물질이란 텅 빈 허공이란 말이렷다.



그러나
 물질(色)은 공(空)이 아니라 원자로 꽉 채워져 있다는데?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 사실이라면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지는 것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텅 비어 공허한 물질이 무슨 요술로 무겁단 말인가?
 거대한 골리앗은 어찌하여 다윗의 작은 돌멩이에 쓰러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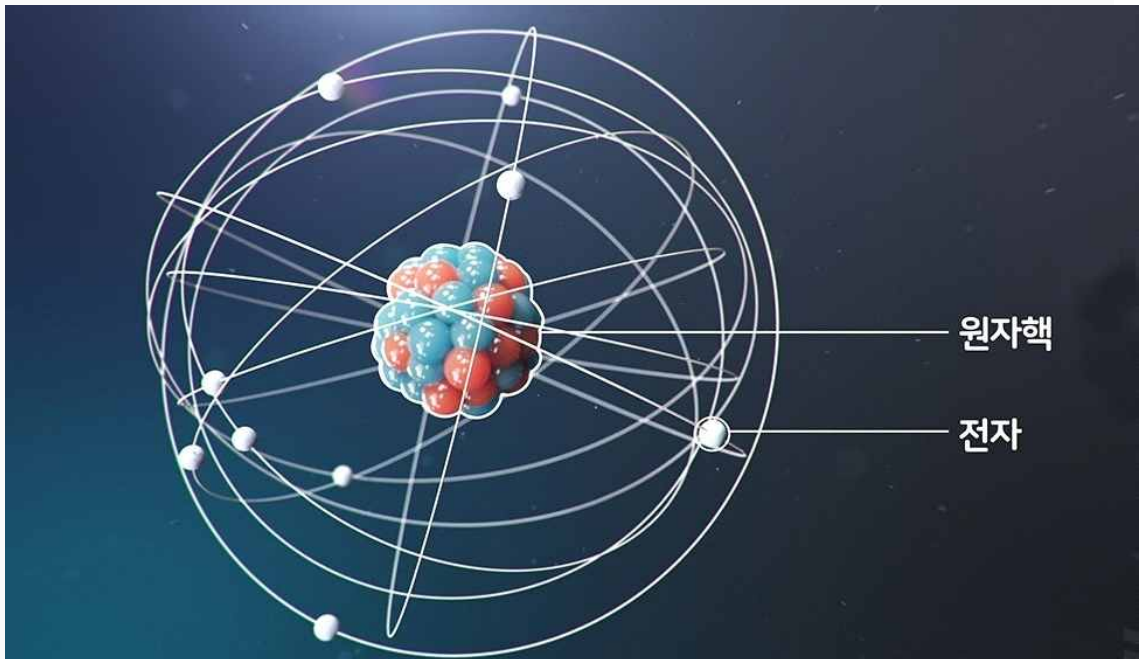


난해하고도 기이한 현상이었다.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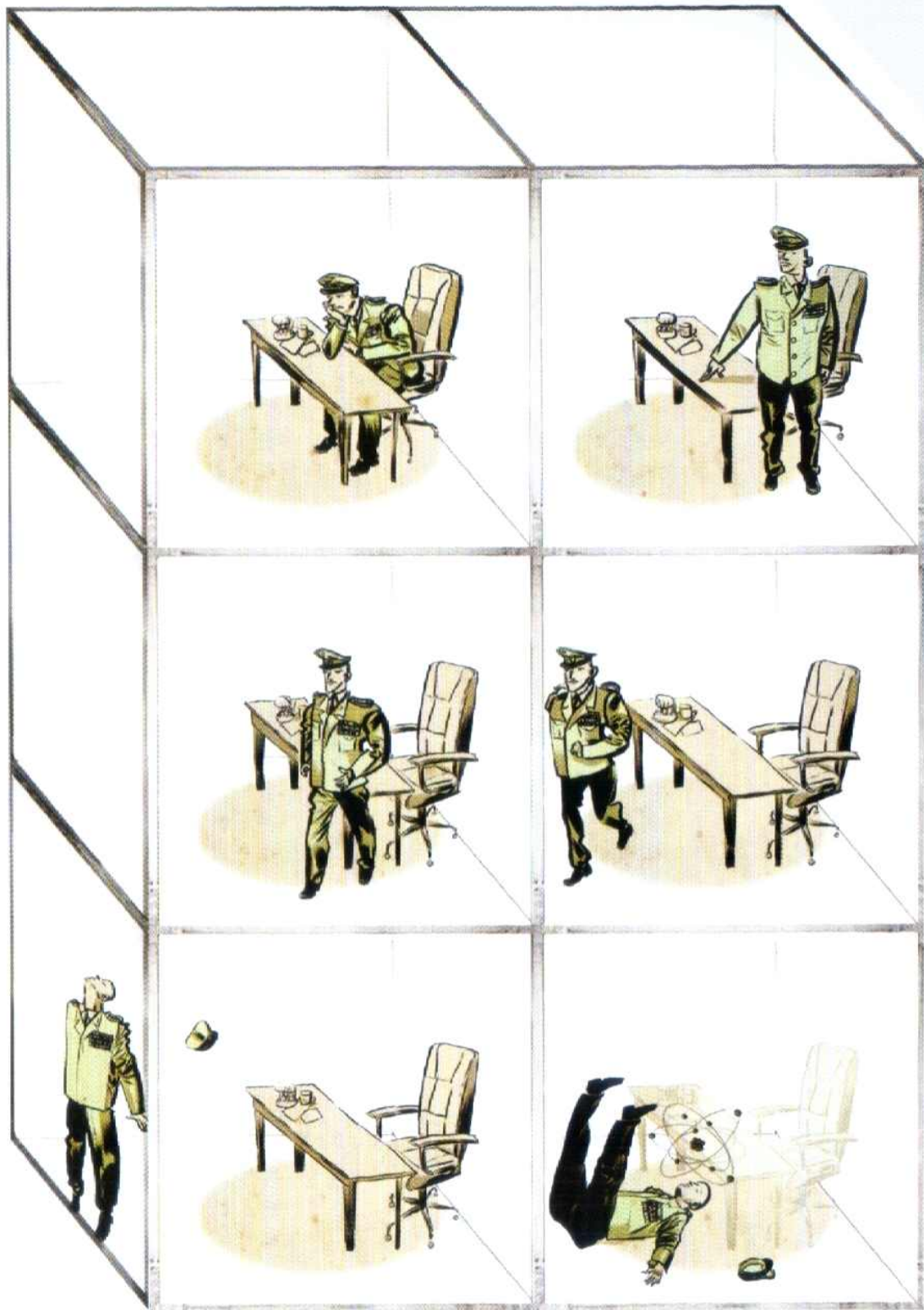
색즉시공(色卽是空)일 리가 없었다.
공즉시색(空卽是色)일 리도 없었다.
그 허망한 물질을 탐하여 인간의 목숨까지 노리는 걸 보면.....



그런데 의외였다.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내부는 사실상 텅 비어 있단다.

축구공만 한 원자핵이 시청 앞 잔디 광장에 놓여 있다면
전자는 수원쯤을 떠 도는 먼지 한 알갱이란다.
서울 시청에서 수원까지는 30 km 가 넘는다.
단단하기로 소문난 다이아몬드조차도 탄소 원자핵이
축구공이라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할 이웃 원자핵이 15 km 나 떨어져
있단다.

서울에 축구공이 하나 있고 수원에 먼지 알갱이!
그 사이엔 아무 것도 없다면?
그야말로 물질은 텅 빈 공간이다.
절대적인 허공이다.
물질의 내부는 광활한 허공이다!
그렇다면 색즉시공이 백 번 옳다.



미 육군 정보부장으로서는 휘하에 16,000 명의 부하를 거느린

앨버트 스터블바인 3 세 육군 소장,
그와 나는 무척이나 서로 닮았다.
그는 생각했다.
물질의 내부는 허공이다.
그렇다면 비록 단단한 콘크리트 벽일지라도 세게 부딪히면
능히 옆방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그는 일어나 벽을 향해 돌진하였고 부딪힌 순간 충격으로
쓰러졌다.
텅 빈 공간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었다.



첨단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들.....
그들의 연구 업적에 무임승차 해온 나의 몰염치를 고백하련다.
미안하지만 그대들은 지식을 물어다 주는 하수인들이었다.
고맙기 짝이 없는 하수인들이었다.
지적 명예를 걸고 피 터지는 쟁탈전을 벌이는 전사들에게
내가 수여할 훈장을 고맙게도 알프레드 노벨이 가로채주었다.



광활한 허공에 포진하고 있는 원자핵.
그 원자핵 알맹이들끼리 어떤 카르텔이 결성되었길래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장군을 자빠뜨렸는가.
핵력으로 푹푹 뭉친 원자핵 알맹이를 박치기시켜
어떤 군식구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프로젝트!
놀랍고도 환상적인 질문 방식이었다.



원자핵은 단순한 알맹이가 아니었다.
이름도 기묘한 수많은 소립자들의 결집체였다.

Standard Model of Elementary Particles

three generations of matter (fermions)						interactions / force carriers (bosons)	
	I	II	III				
mass	$\approx 2.2 \text{ MeV}/c^2$	$\approx 1.28 \text{ GeV}/c^2$	$\approx 173.1 \text{ GeV}/c^2$	0		$\approx 124.97 \text{ GeV}/c^2$	
charge	$\frac{2}{3}$	$\frac{2}{3}$	$\frac{2}{3}$	0		0	
spin	$\frac{1}{2}$	$\frac{1}{2}$	$\frac{1}{2}$	1		0	
QUARKS	u up	c charm	t top	g gluon		H higgs	
	d down	s strange	b bottom	γ photon			
LEPTONS	$\approx 0.511 \text{ MeV}/c^2$	$\approx 105.66 \text{ MeV}/c^2$	$\approx 1.7768 \text{ GeV}/c^2$	$\approx 91.19 \text{ GeV}/c^2$			
	-1	-1	-1	0			
	$\frac{1}{2}$	$\frac{1}{2}$	$\frac{1}{2}$	1			
	e electron	μ muon	τ tau	Z Z boson			
	$< 1.0 \text{ eV}/c^2$	$< 0.17 \text{ MeV}/c^2$	$< 18.2 \text{ MeV}/c^2$	$\approx 80.433 \text{ GeV}/c^2$			
	0	0	0	± 1			
	$\frac{1}{2}$	$\frac{1}{2}$	$\frac{1}{2}$	1			
	ν_e electron neutrino	ν_μ muon neutrino	ν_τ tau neutrino	W W boson			

역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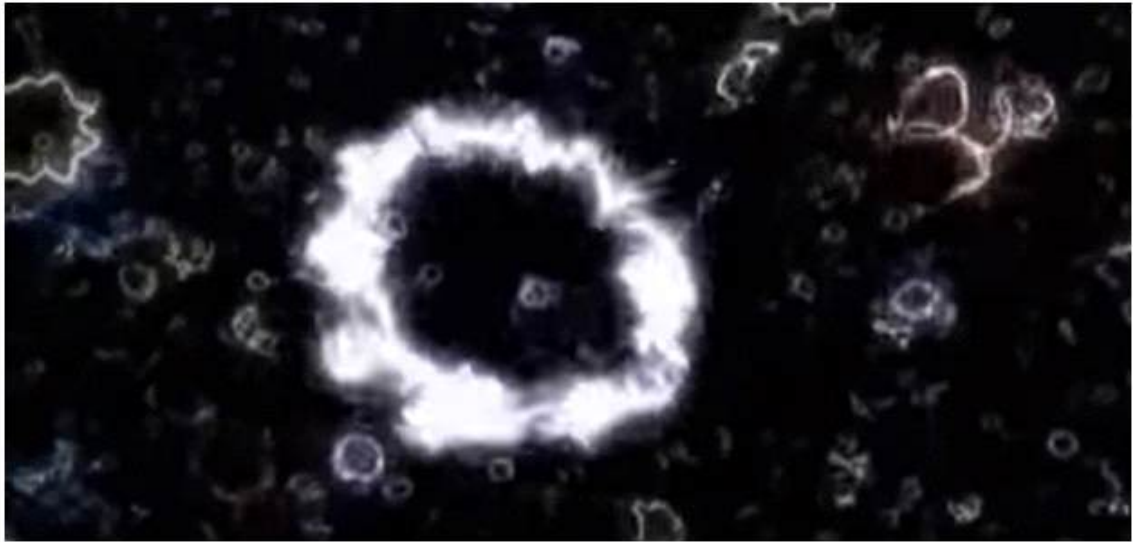
더 이상 쪼갤 수 없다고 여긴 물질의 기본 입자를
자꾸만 쪼개는 과정을 밟아왔다.

2012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한 인류는 흥분하였다.

언제나 그럴듯 물질을 구성하는 최종 단위인 양 법석을 떨었지만
나는 자꾸만 '제논의 역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무리 분할 해도 공간은 없어지지 않는다>

공간이 남아 있는 한 공간을 채우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무엇이 **'손에 만져지는 실체'**여야 한다.



그러나 인류가 가진 지적 용량으로
문제의 실체를 상정(想定)하는 것이 무리였는지
'떨림 현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는 듯하다.
도도한 지적 역사의 물줄기에 초끈이론이 떠내려갈 지는
의문이지만
아쉽게도 나에겐 그것을 목격할 시간이 남아있질 않다.
그러나 타고난 천성, 궁금증은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게 한다.
나만의 뇌피셜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허하면서도 손으로 만져지는 실체>



풍력발전기 날개의 회전반경이 차지하는 공간은 대부분 허공이다.
새들은 자유로이 이 공간을 드나들 수 있다.



헬리콥터 회전익의 반경도 허공이었다.
그러나 그 허공으로 진입이 가능한 새는 없다.
회전익 반경 내로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헬리콥터 회전익이 워낙 '빠르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초당 수천 만 번 정도 회전을 하면
 원래 허공이었던 회전반경 안의 공간은 '**단단한 물질화**'가 된다.
 운동(진동)은 허공을 단단하게 만드는 근본이다.
 시청 앞에 놓인 축구공을 기점으로 수원쯤에 포진한 전자들이
 위치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운동(회전?)**함으로써
 시청과 수원 사이의 허공은 단단한 물질화가 되고
 앨버트 스터블바인 3세 육군 소장을 쓰러뜨리는 것이다.
 고로
 색즉시공(色卽是空)이 아니라
 색즉시동(色卽是動)이어야 하고
 동즉시색(動卽是色)이어야 하는 것이다. ■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가져와 일부는 편집)

구독하기
 글 옵션

최고예요 재밌어요 9
 댓글 4
 표정짓기
 공유하기



강미애 나무소리
새로운 진리 색즉시동 동즉시색 ^^
8 월 25 일 오전 7:05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고도를 기다리며
재미있는 상상만 하고 살고 싶어요 ^^*
8 월 25 일 오전 7:36
좋아요 1

표정짓기
댓글 수정



석화.
와우!
머리아파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저는
미개인에 가깝군요.
공과 동.
8 월 25 일 오전 9:56 표정짓기
표정짓기
댓글 수정



암석
궁금했습니다. 이틀동안.....
오늘은 내맘이 나팔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자식놈 돈 가불하는거 같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주식에 투자한 기금은 어느누가
받아줄수있는지
?
8 월 25 일 오전 10:31
슬퍼요 1

표정짓기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8월 26일 오전 5:30 194 읽음

<단상>

정리의 흔적...(4)



친구가 없다.
실패한 인생이다.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고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인생인데 실패다.



중학생일 때 알게 된 친구 홍군.
타고난 그림 솜씨와 기발한 상상력을
친구인 나를 속여먹는 데 투자하였다.



그를 소재로 중편 소설 <뎃>을 쓰게 되었지만
더 이상 친구는 아니다.
살아있지만 소설 속에서처럼 그는 죽은 셈이다.
지금쯤 어쩌면 정말로 죽었는지 모른다.



대학 시절의 절친들....

OutofSight, OutofMind 가 적용된 대표적인 경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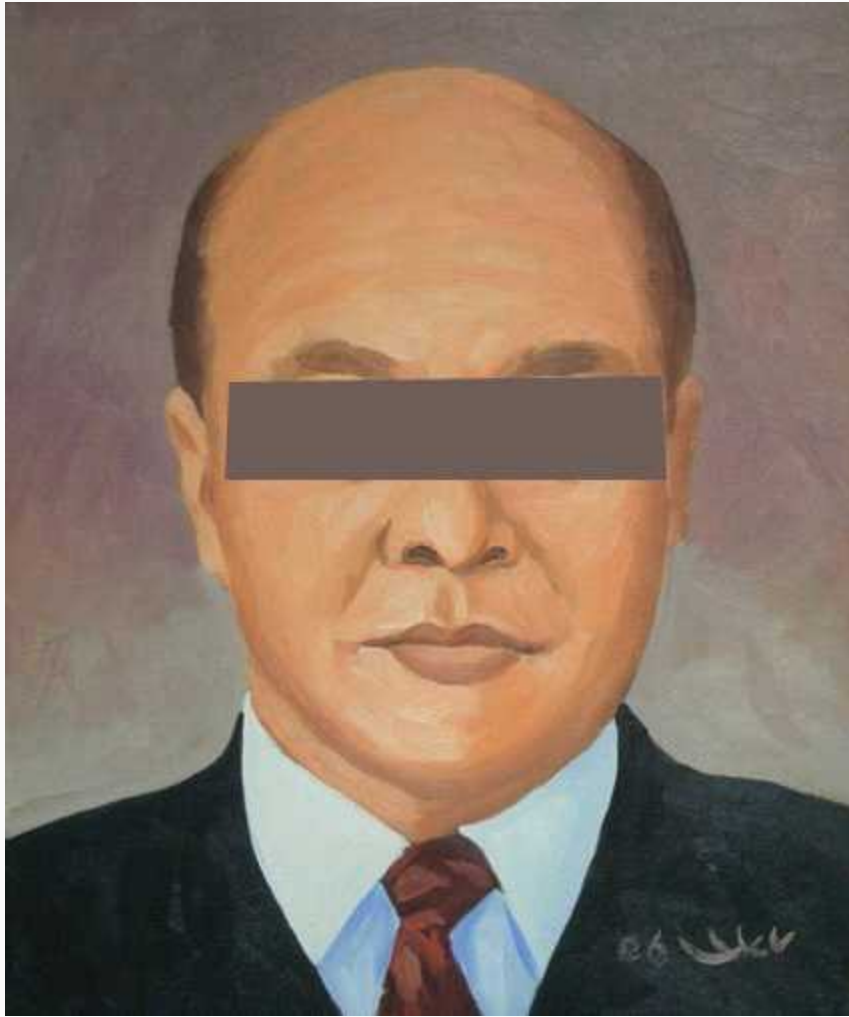
사이먼 & 가펍클을 흥얼거릴 무렵엔

독재정권 타도를 함께 외쳤지만 지금은 아니다.

<문재인 그 새끼>를 입에 달고 사는, 철저한 ㄴ시의 시민들이다.

만정이 떨어진다.

자녀들 청첩장 정도는 보내오더니 지금은 소식도 없다.



오히려 대학친구의 초등 동기생이었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었다.
수산과학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모로 나완 죽이 맞았다.
박사 논문도 여러 편 썼는데도 안타깝게 치매가 일찍 찾아와
지금은 연락이 두절이다.
보수정권이 아닌 것으로 친구 사이를 갈라 놓은 유일한 경우였다.



일방적으로 절친이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하다.
마누라의 여고 동기생 남편인데 운이 좋았는지 의대 시절 선택한
이비인후과가 환자가 들끓어 영업적으로 성공한 의사가 되었다.
그 역시 ㄷ시의 시민답게 나의 만정을 일찍부터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수 더 떠 희한한 가치관으로 나를 기함시킨다.



<OO 아, 잘 함 보래이. 개량한복 입은 사람은 전부 다 빼딱하데이>

초등 동기생이자 맥주 친구인 스교수.
조영남을 능가하는 가창력과 호방한 성격으로 '술친구'론 딱이다.
2002년 12월 19일 저녁.
고향 친구 황군과 둘이서 단골 맥줏집 '베네치아'에서
개표 방송을 보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서 마셨는지 이미 반 술이 넘은 스교수가 나타나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이 무라. 너거는 좇겠다. 나는 인자 들어 가 잘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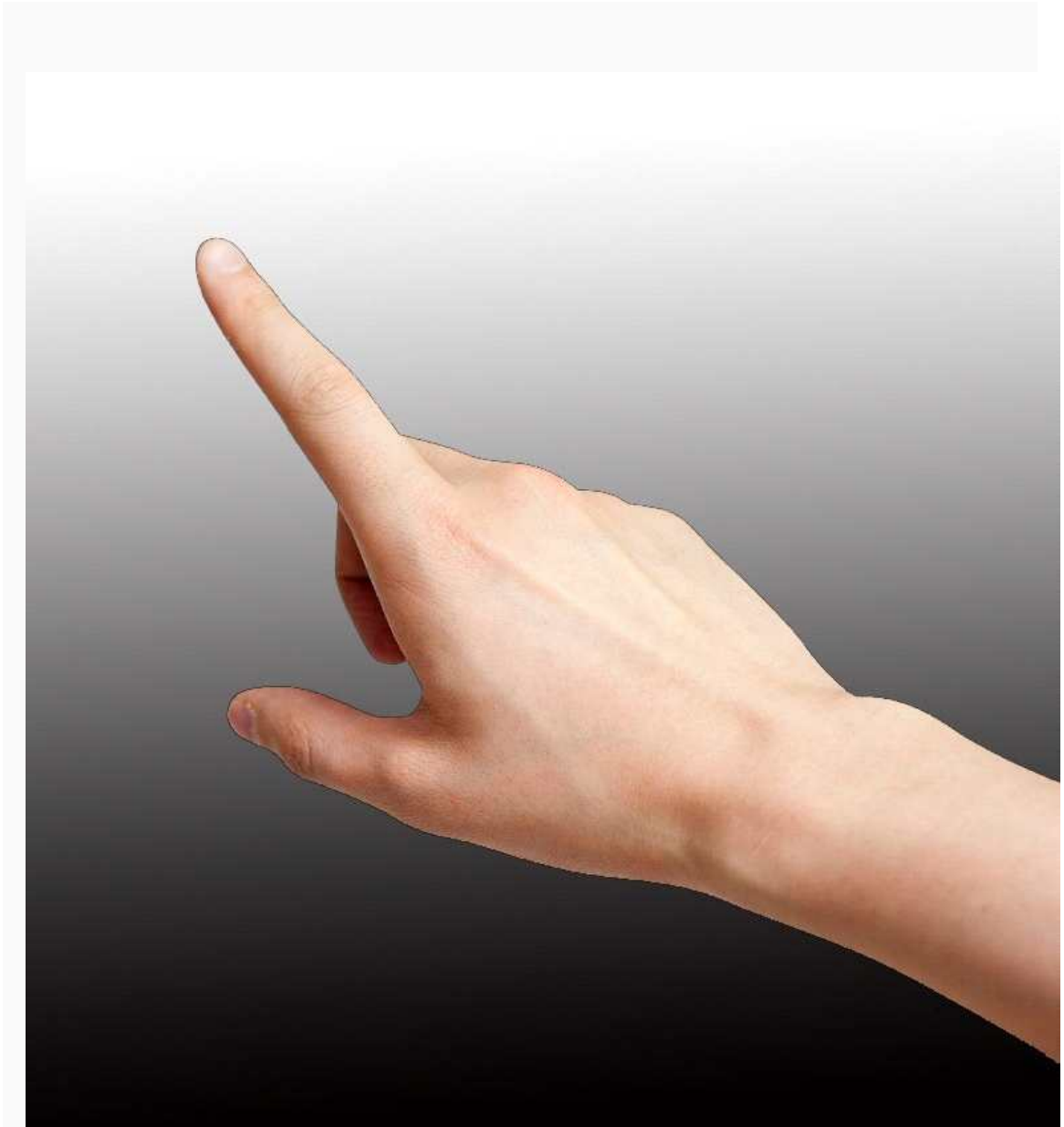
며 돌아섰는데 그의 뒤통수가 매우 허전해 보였다.
공학도인 사교수가 경부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지지하길래
이 친구와 나눌 것은 술잔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하였다.



노무현은 수많은 고향 친구들을 나에게서 떼어 놓았다.
가진 것이라곤 불알밖에 없는 한 녀석이 술자리에서 떠들어댄다.

<노무현 찍은 놈들 전부 손가락을 잘라야 돼>

나는 그 녀석 눈 앞에다 내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아나 찢라라. 이기 노무현 찍은 그 손가락이다>

이후로 초중등 동기생들은 나를 똥 친 작대기 보듯 한다.

전교조 또한 직장 동료들을 나에게서 떼어 놓았다.
그들은 빨갱이와 조합원을 구별하지 못했다.



나는 사정상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내가 서 있을 중간지대는 없었다.
퇴직 이후 점심 식사 정도는 함께하는 동료는 있지만 결코 그들은 중간지대에서 만난 친구들은 아니었다.
노사모나 유시민 팬카페를 통해 만난 이들은 많다.
색소폰이나 테니스 탁구 등산 등의 매개물을 통해 만난 이들 또한 많다.
최근엔 인터넷 밴드를 통해 알게 된 이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인간성'에 이끌려서 가까운 사이가 된 친구는 사실상 없다.



오로지 '씻고 벗고' 유일한 친구 황군.
최종학력은 고졸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리하다.
아니, 정의롭다.
그는 지금 치매 초기인 부인을 간호하기 위해 고향에 머물고
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고향이건만
OutofSight, OutofMind 가 적용될까 봐 조금은 염려스럽다. ▣

(일부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구독하기
글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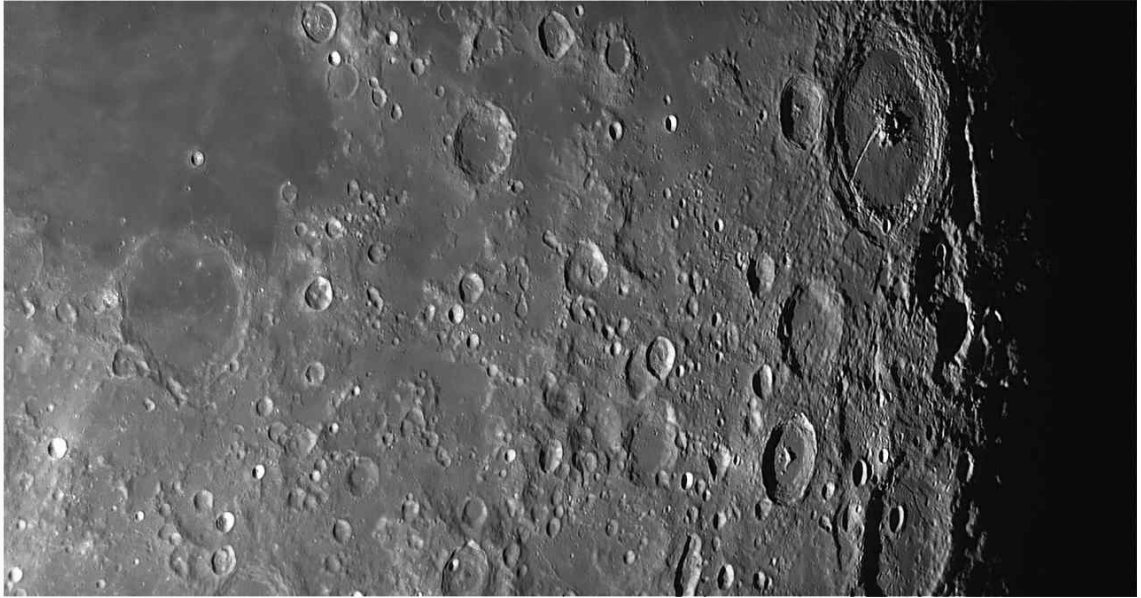


흐르는 강물처럼

2022년 8월 27일 오전 4:56 96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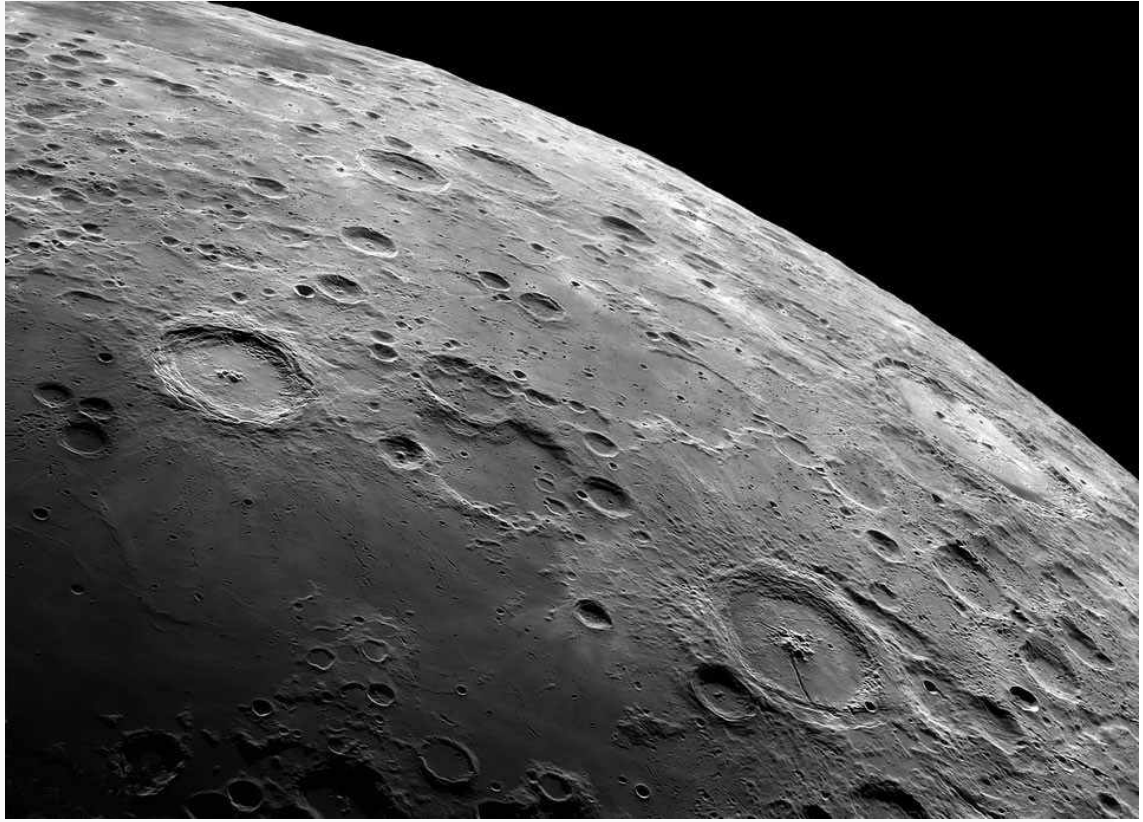
<단상>

군자 낚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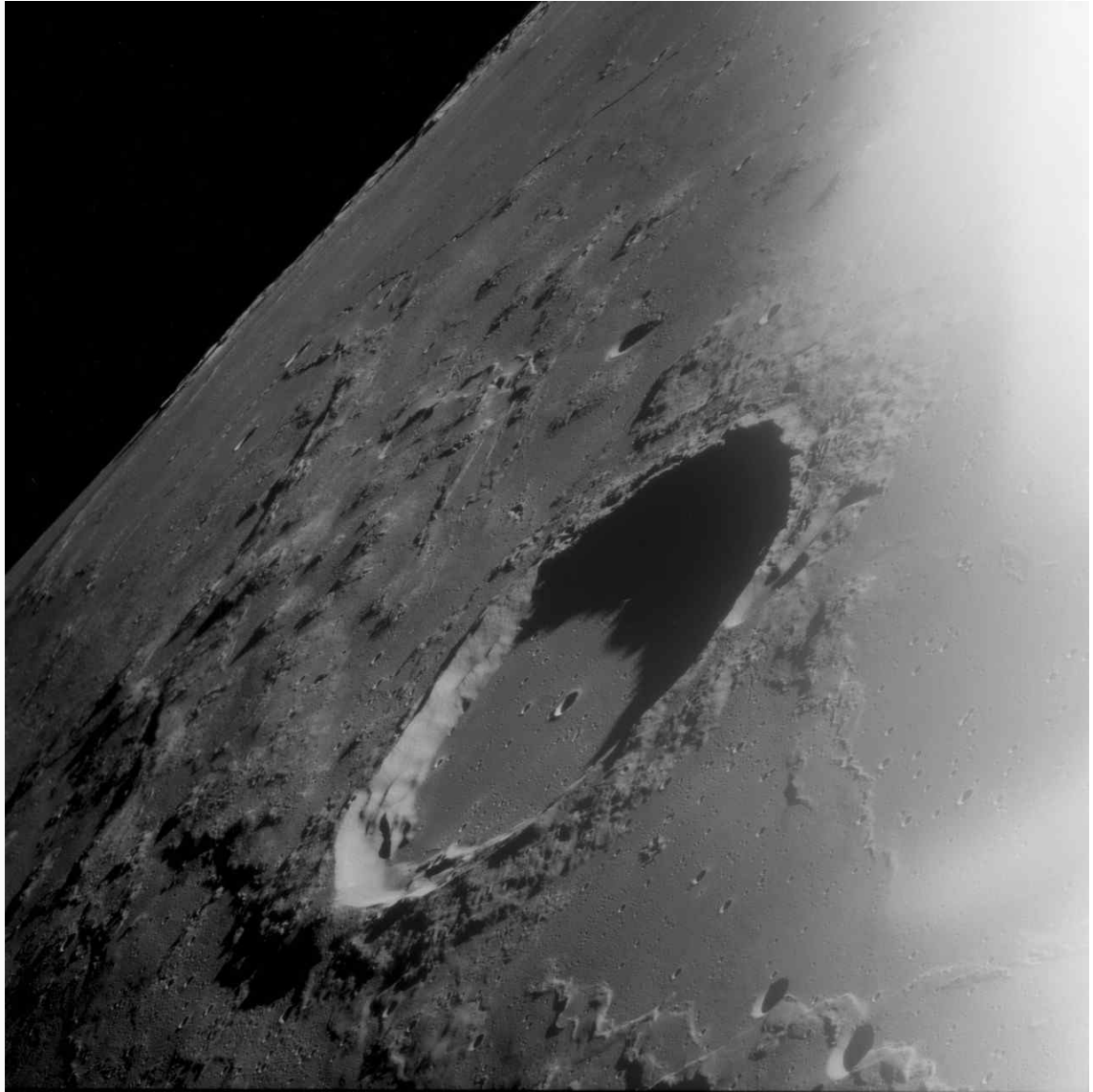


해도 해도 너무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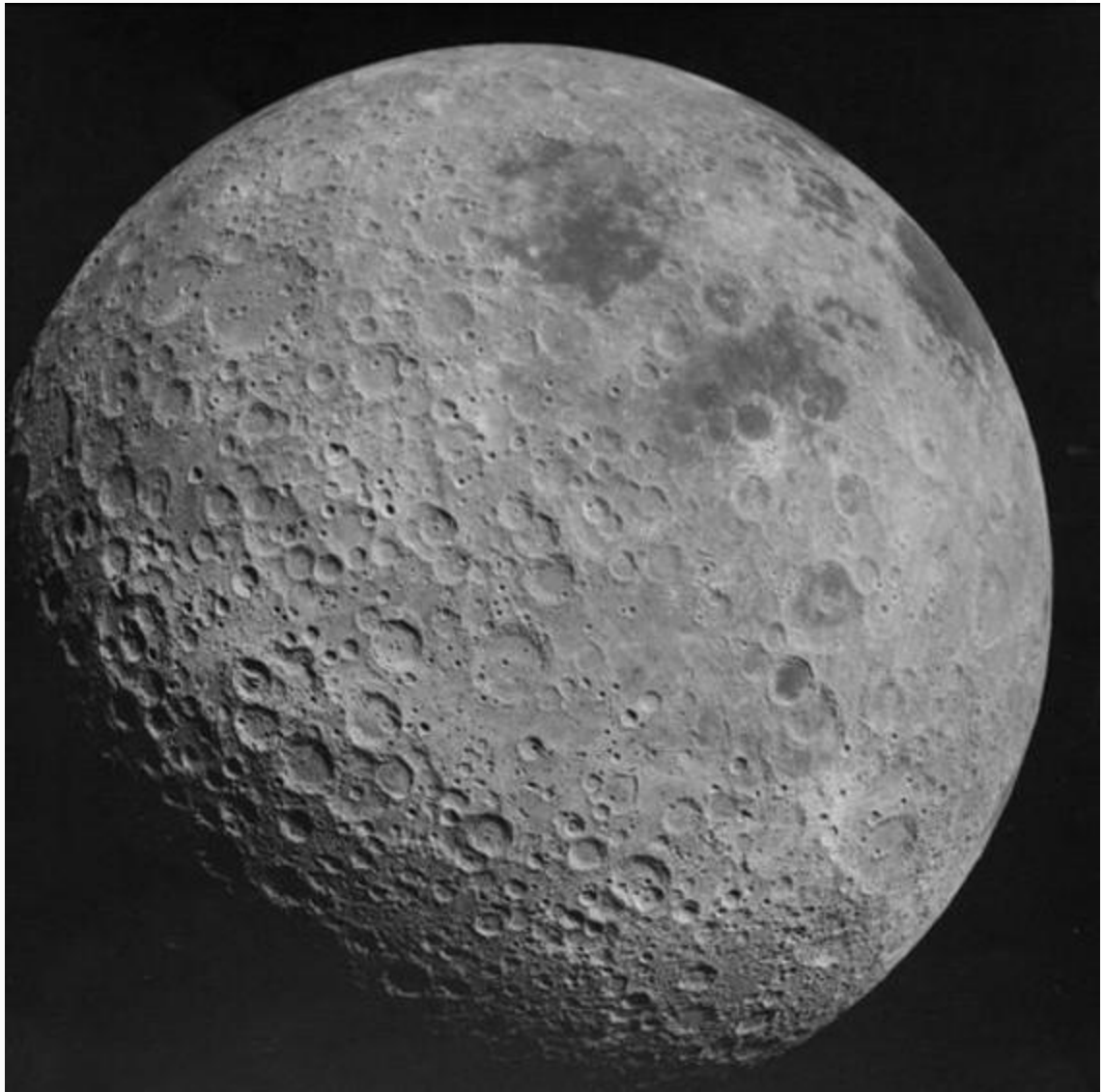
오데 하나 빼꼼한 데가 없네



뭐 하나 징긴 거 없고
볼 거 없다고 이랬능강?



울매나 큰 기 와서 박았으나
시상에, 배 창시가 터질 뿐 안 했나.....



1 만 년에 하나씩만 날아와 박아도
저리 얻어맞은 세월이 몇 억년일꼬.....



아무리 무정한 돌덩이라도 그럴지
없이 산다고 이라는 뱀은 아인데....



그런데 보래이, 이리 와서 함 보래이?
웃는다. 우리 보고 웃는다!



억만 년이나 상처받고 헐벗은 주제에
푸른 이불에 싸여 호강에 빠진 우리보고 웃는다.



났네, 났어! 군자가 났어!
지 어둠은 뒤편에 감추고 우리 어둠 밝혀 주는.....

(이미지는 Microsoft Edge 에서)
구독하기

=====